박광태, 광산구·당내 지지…강운태, 남구·50대 선호

광주일보·윈지코리아컨설팅
광주·전남 주민 여론조사

■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예상 판도

광주시장, 박-강 오차범위 혼전…부동층 54%

전남지사, 박준영 서남부·주승용 동부권 강세

◇**광주시장 후보 선호도**=최근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유치에 성공한 박광태 현 시장과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한 강운태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강운태 의원이 14.3%, 박광태 시장은 12.6%를 기록, 오차범위(±3.7%P) 내에서 혼전 양상을 보였다.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7.0%, 전갑길 광산구청장 4.3%,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2.4%, 김효석 의원 1.9%, 양형일 전 의원 1.7%,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1.2%로 조사됐다. 하지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54.0%)이 '잘 모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 의원은 남구(35.0%)와 50대(25.3%)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박 시장은 광산구(18.3%)와 20대(8.6%), 민주당 지지층(16.7%)에서 강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꼽혀왔던 강 의원은 지난 3일 민주당 복당 신청을 결행하면서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렸고, 내무·농림 장관을 지낸 국정 경험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높은 시정만족도(58.7%)를 보여준 박 시장은 광주시민의 숙원인 하계U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상승세를 높일 수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돌발변수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추모정국'이 장기화되면서 U대회 유치 성과가 묻힌 데다, 3선에 대한 견제 심리도 만만치 않아 오차범위 이내지만 강 의원에 소폭 뒤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박 시장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양자간 지지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사 후보 선호도**='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박준영 지사가 24.4%로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섰다. 그 뒤를 이어 주승용 의원 11.4%, 이석형 합평군수 8.1%, 이낙연 의원 4.9%를 각각 얻었다. 응답자의 51.2%는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지역별로는 박 지사가 중남부권(45.5%)에서, 주 의원은 출신지(여수)인 동부권(22.3%)에서, 이 군수는 광주근교권(11.2%)과 서남권(11.2%)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박 지사는 지지율 11.5%에 그친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도가 높아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동부권에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주 의원이 동부권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인지도를 높여 광주근교권 등으로 지지세를 확장해 나간다면 예상 밖의 치열한 접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 의원이 30대(16.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며 대시할 경우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함평나비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얻고 있는 이석형 군수도 잠재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 전남지사 선거가 3파전 양상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시장·박지사 초선때 비해 잘하고 있다"

■ 시장·지사 업무 만족도

◇**광주시장 직무 수행**=박광태 시장은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58.7%로, '못하고 있다'(27.4%)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았다.

특히 초선 때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는 응답이 31.2%로 가장 많았지만, '더 잘하고 있다'(23%)는 평가가 '더 못하고 있다'(19.1%)는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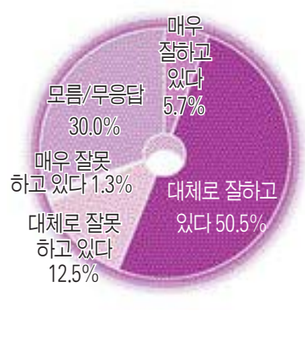
박광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이 재출마할 경우 '지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0.4%에 그쳤다. 37.8%는 잘모르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광주시민들은 박 시장의 직무 수행에는 긍정평가 하고 있지만, 3선 지지에 대해서는 통상적 견제심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박 시장이 3선의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확정 등을 포함해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층을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광태 광주시장 시정운영 만족도

■박준영 전남지사 도정운영 만족도



◇**전남지사 직무 수행**=박준영 지사도 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긍정평가(56.2%) 됐다.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3.8%에 그쳤다. 초선 때와 비교했을 때 '비슷'(36.1%)하거나 '더 잘하고 있다'(18.3%)는 긍정 응답이 높게 나왔다.

박준영 지사의 '3선 도전'에 대해서는 '지지'(26.5%) 응답이 '비지지'(21.9%) 응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51.6%)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박 지사는 중장년층과 민주당 지지층 등 전통적 지지층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 청년층과 생산판매직에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초선에 대비해 잘한다는 평가가 30대에서 1.1%밖에 안 나왔다는 점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는 젊고 참신한 이미지의 후보가 경쟁상대로 나올 경우 젊은 층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당공천 폐지 압도적 지지 '무소속 돌풍' 예고

■ 무소속 뜨나

광주·전남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압도적(광주 54.7%, 전남 65.8%)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폐지돼야 한다'(광주 48.7%, 전남 48.9%)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광주 24.4%, 전남 25.1%에 그쳤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광주 44.1%, 전남 45.9%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정당공천제 폐지' 응답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유지해 온 정당공천제가 득보다는 '후보 줄 세우기' 등 폐단이 더 많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소속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주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광주·전남의 경우 지금껏 민주당 깃발만 들고 나오면 찍어줬는데, '해준 것이 무엇이냐'는 경고의 메시지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무소속으로 나와도 다시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인물이냐', '정당이냐'를 두고 갈등하는 상황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정당공천 폐지 운동이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경우 '무소속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음을 예측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공천을 했을 경우 무소속 강세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 공천

■ 윈지코리아컨설팅은

본사와 함께 2010년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주)윈지코리아컨설팅은 새로운 개념의 정치·정책 컨설팅을 모토로 지난 5월에 창립한 정치컨설팅 전문기관이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은 특히 지난달 31일 민주당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4년 만에 역전했다는 최초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정치권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의 최대 장점은 전문가들의 집단이라는 것.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참여정부)과 여론조사국장(국민의 정부)을 역임한 이근형씨(47)와 한국조사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이사인 박승열씨(41)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참여정부 청와대 여론조사국장 출신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 이사였던 박시영씨(42)가 부사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